

2021 세계 한국어 한마당 집담회

문식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어 문해력 교육의 대응

원진숙*

서울교육대학교
jinsook@snue.ac.kr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맞아 시작된 전면적 온라인 원격 수업 등으로 촉발된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통이 일상화되는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면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지던 소통이 비대면 디지털 공간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종래의 구두 언어와 문자 언어 중심의 소통 방식은 전자말(매체 언어) 중심의 소통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전자말은 빛의 속도로 구두 언어와 문자 언어를 하나로 아우르고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문식 환경의 변화는 가히 문명사적 전환기를 촉발하였다 해도 좋을 듯합니다.

저는 오늘 국어교육학회를 대표하여 이러한 문식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어 문해력 교육의 문제를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1. 왜 가르쳐야 하는가

-새로운 문식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자와 적응하지 못하는 자의 문제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 우리 사회와 학교 안에서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학습자 간의 유무선 인터넷 접근성과 속도,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활용 능력 여부에 따라 교육 격차와 학력 격차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자말 중심의 문식 환경 자체가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존하기에 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불평등과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소통 양식이 사회,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연결을 손쉽고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편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 변화된 문식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취약 계층의 경우엔 사회 경제적 불평등과 개인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영국의 켄 로치 감독이 제작한 <나, 다니엘 브레이크(I, Daniel Blake)>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다니엘 브레이크는 40여 년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한 가정의 성실한 가장으로, 목수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 이전 국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실업수당마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생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연필 세대인 다니엘 브레이크는 이 변화된 문식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결국 극한 상황에 내몰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영화는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문맹자야말로 그 사회에서 가장 불쌍하고 힘없고

빈한한 자이며 이런 문맹자를 생산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불평등임을 지적한 프레이리(Freire)의 말을 떠올리게 해 줍니다. 이 영화는 변화된 문식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문제는 한 개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학교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갖도록 준비시키는 곳이어야 한다면 당연히 변화된 문식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학교 교육의 당위적인 책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 변화된 문식 환경과 학교 리터러시 교육의 확장성 문제

우리는 디지털 사회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디지털 세상, 인터넷이라는 공간 안에서 소통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변화된 문식 환경 속에서 과연 학교에서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문식성 교육을 베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안게 되었습니다. 본래 학교 문식성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읽기와 쓰기 교육이라는 제한된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문식 환경 자체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소통 방식 역시 기존의 활자 중심의 텍스트로부터 문자, 그림, 사진, 도표, 음성, 동영상 등의 다양한 표상 양식을 포함하는 복합 양식 텍스트로 소통하는 것이 새로운 표준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학습자들은 이용 가능한 모든 기호적 자원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방법, 이를 통해 세상을 읽어내고 자신의 목소리로 소통하는 법을 새롭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문식성 교육은 당연히 그 개념역과 범위가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기호와 양식을 넘나드는 확장된 텍스트로서의 각종 SNS, 인터넷, 유튜브 등의 매체로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서 리터러시는 복합 양식 리터러시(multimodal literacy),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비판적 리터러시(critical literacy) 등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리터러시는 당연히 국가 수준의 국어과 교육과정 안에서 교육의 대상으로 편입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미 고민이 되신 김수업 교수님은 일찍이 국어교육은 입말과 글말, 전자말을 함께 아울러 가르쳐야 할 필요성과 함께 전자말을 보기(viewing)와 보이기(representing)로 나누어 교육과정 안에 체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참으로 탁월한 혜안이고 통찰이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교육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정혜승 교수님의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식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총론 차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고 학계 차원에서도 리터러시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변화된 문식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매체 언어를 별도의 영역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제대로 가르치는 방식 대신 현재의 영역 구분 안에서 성취 기준 수준에서 반영하는 소극적인 방식에 논의의 무게 중심이 기울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지금과 같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하위 영역 안에서 성취 기준 수준으로 매체 언어를 편입시키는 방식은 원천적으로 '매체 언어'를 본격적으로 교육하기도 어렵고 여전히 탈맥락적이고 분절적인 기능이나 전략 중심의 교육을 답습함으로써 우리 국어 교과 안에서 변화된 문식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식 환경 자체가 바뀌고 소통 공간이 달라지면 소통 방식이나 소통 규범이나 문법 등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기존의 교육 방식이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전자말(매체 언어) 자체가 우선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주고받는 것이기에 이 도구를 부려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읽기만 하더라도 우선 추상적인 기호, 글, 영상, 그래픽, 이미지와 같은 추상적 기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연결해서 이해하면서 지식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텍스트 중심의 탈맥락적 읽기와 달리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든 백과사전적 정보들이 네트워크 방식으로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공간 안에서 다양한 출처의 텍스트를 가로지르면서 진실과 거짓, 과학적/비과학적 정보를 분별하고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힘,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가치로운 정보를 선택적으로 찾아 읽으면서 여러 텍스트들을 비교 분석하고 연결하여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어 읽을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쓰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줄글만으로 이루어져 왔던 종래의 쓰기와 달리 영상, 소리, 그래픽 등 다양한 코드와 모드로 된 기호 자원을 활용해서 의미를 디자인하여 결과물을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형태의 교육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글을 '쓰다'가 아니라 의미를 '디자인하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디지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방식과 문법들은 물론이고 소통 규범이나 윤리도 지식, 기능, 태도 범주를 중심으로 차근히 교육 체계와 내용을 새롭게 정립하여 초등학교급에서부터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새 교육과정 개정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학계 차원에서 좀더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변화된 문식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의 큰 그림을 제대로 그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학습자관과 교육 방법의 문제

고교 학점제를 위해 개정되는 2022 새 교육과정에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agency)'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도 학습자를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힘과 의지를 가진 주체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확실히 우리는 학교 교육을 통해 모든 것이 모호하고 불확실한 이 세계에서 자기 주도성이 뚜렷한 학습자를 키워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아 반가웠습니다.

자기 주도성을 지닌 학습자는 일단 종래의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학습자를 수동적 존재 내지 뭔가를 채워 넣어 주어야 하는 결핍의 존재로 보아 오던 것과는 다르게 자신의 정체성에 기반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삶의 경험을 가치로운 학습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당당한 문식 실천 주체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식 실천 주체로서의 학습자는 스스로 목적을 세우고 성찰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능력을 지니므로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를 만들어 가며 타인에 의해 결정된 것을 수용하기보다 책임감 있는 결정과 선택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학습자관은 이 변화된 문식 환경 안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통찰을 갖게 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화된 문식 환경 안에서 나고 자라는 학습자를 일컬어 우리는 흔히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 나고 자란 학습자들에게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인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해 오던 방식,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교육하고자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식성 교육 자체를 여러 전공자들의 기반이 되는 하위 영역들로 쪼개고, 그 영역 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왔던 지식과 기능과 전략들을 분절적인 방식으로 마치 해부학 교실에서 해부학 실험을 하듯이 탈맥락적으로 잘게 쪼개어 가르치고, 지식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리터러시는 인간이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앎을 구축하고 성찰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주어진 삶의 조건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매우 주체적이고 실천적인 존재이며, 언어가 가진 힘으로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그 언어의 사용으로 자신의 삶과 사회를 변혁시켜 나갑니다. 결국 리터러시는 인간이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앎을 구축하고 성찰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매우 강력한 도구인 셈이다.

변화된 문식 환경 하에서는 디지털 공간 안에서 '검색 엔진', 'You-tube', '블로그', '파워포인트', '구글 독스(Google Docs)', 'SNS', '줌(Zoom)', '스마트폰', '패들렛' 등은 매우 유용한 테크놀로지 자원들이 될 것입니다. 최근 정현선 교수님이 번역한 <디지털 네이티브, 그들은 어떻게 학습하는가>라는 책에서 마크 프렌스키는 파트너 관계 기반 교수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수자는 수업에서 다양한 테크놀로지 자원을 적극 도입해서 디지털 네이티브인 학습자들이 또래 학습자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스스로 이러한 도구들의 사용법을 익히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어려운 것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닌 질문을 통해서 접근하는 파트너 관계 기반 교수법의 장점은 학생들이 연구자로서 스스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분명 우리의 학습자들로 하여금 변화된 문식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함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터러시의 힘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로운 교육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우리 사회의 궁극적인 안녕을 구현하는 데 있어 든든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참고 문헌>

- 원진숙(2020), 인공지능 시대의 국어 문식성 교육의 혁신, 한국초등교육 31.
정현선, 이원미 역(2019), 디지털 네이티브 그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사회평론 아카데미.
정혜승(2022),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과 과제-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제74회 국어교육학회 발표 자료집.
조병영(2021), 뉴리터러시와 전환적 의미 디자인, 국어교육 171.
허준 역(2014), 문해교육-파울로 프레이리의 글읽기와 세계읽기, 학이시습.